

경찰, 휴가철 온라인 사기 집중 단속

여름 휴가철을 맞아해 인터넷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요했다.

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5일간 하계 휴가철 대비 인터넷 사기 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인터넷사기 피해 신고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휴가용품 및 여름 가전' 관련 인터넷사기 피해신고는 모두 476건이 접수됐다.

이 중 37%인 177건이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캠핑용품 66건, 에어컨·선풍기 등 48건, 여행 상품 29건, 숙박권 22건, 물놀이 공원 이용권 12건 순이다.

이러한 사기 발생들은 주로 인터

7월2일~8월15일, 인터넷사기 단속 강화기간 사이버캅에서 사기피해 신고이력 여부 확인 수수료 내더라도 안전결제서비스 이용 당부

넷 쇼핑몰이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여름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고가의 텐트 등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32명으로부터 약 1억2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어플리케이션에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판매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메신저만 연락을 할 경우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 간 물품을 직거래할 경우에는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소액의 수수료로 지급하더라도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안전결제 서

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인터넷주소(URL)가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

안전결제사이트의 무통장 결제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휴일 거래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상대방 계좌번호가 표시된 계좌 이체내역서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라"고 전했다.

뉴스스

태국 동굴 실종소년들 전원 생존 확인

"(구조대원)몇 명이나 되냐?(소년)15/(구조대원)15, 훌륭하다! 우리가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 중 우리가 처음이다/(소년)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구조대원) 월요일, 여러분은 여기에 10일간 있었다. 여러분은 매우 강하다. 우리가 간다, 오케이, 우리가 간다"

2일 태국 치앙라이주에서 실종된 유소년 축구팀 선수 12명과 코치 등 13명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뒤 태국 당국은 3일 실종됐던 소년들과 구조대원들이 처음으로 나온 대화 내용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CNN 등에 따르면 태국 해군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소년들은 다소 여윈 모습으로 동굴 속에서 웅크리고 모여 있었다.

지난 6월 23일 실종된 후 열혈만에 소년들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이 장면을 본 실종자 가족들이 눈물과 환호성을 터뜨리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구조대원은 소년들에게 "여러분은 매우 강하다"면서 모두 구조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다고 CNN 등은 전했다.

니롱사 오소탕나론 치앙라이주 주지사는 3일 새벽 기자회견에서 구조대원들이 음식과 의료진을 동굴에 들여보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보낼 것이고 음식도 보낼 것이다. 거의 10일 동안 먹을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일 밤에는 "그들(소년들)이 모두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대가 동굴 내 일명 '파타야 비치' 지역에 도착해 이곳이 침수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태국 해군 뿐 아니라 미국, 중국, 호주, 영국 전문가들이 구조작업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구조대원들은 실종된 아이들이 적당한 곳으로 피신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300~400m 더 내려가 수색작업을 벌였다.

니롱사 주지사는 "우리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는 동굴에서 13명을 데리고 나와 그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밤새 도록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 캘리포니아주 산불 여러 주로 확산...대피령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산불이 유타주에서도 발생하면서 유명한 뉴시터 호수 스트로베리 저수지 부근에도 산불이 일어나 1일자로 일부 산장에도 대피령이 내려졌다. 이 지역은 주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남동쪽 129km 지점이다.

유타 산림 및 산불 소방대의 제이슨 커리 대장은 이 번 불로 스트로베리 저수지 부근의 삼림 27평방킬로미터 이상이 이미 초토화되었다고 말했다. 2일 현재의 피해상황은 심한 불길과 연기 때문에 아직 추가 집계조차 하지 못했다고 그는 말했다.

이 곳의 산불은 1일 시작되었으며, 사람의 실화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지만 아직 수사는 개시하지 않았다고 커리 대장은 말했다. 하지만 심한 폭염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2일 이후로 더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美 아이다호 아파트서 흥기맛은 3세아이 사망

미국 아이다호주의 아파트에서 6월 30일 자신의 생일 파티 중 9명에게 흥기를 휘둘렀던 남성에 의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된 3살짜리 여자 아이가 이를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용의자 티미 키너(30)는 난민들이 많이 사는 저소득층 아파트에서 잠시 거주했다가 폭행 문제로 퇴거요청을 받아 나갔다가 다음날인 30일 돌아왔으며 마침 생일 파티를 하고 있던 아이들과 어른 9명을 공격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생일파티 주인공 어린이의 사망 소식은 2일(현지시간) 키너의 첫 재판에서 러셀 컴스톡 판사에 의해 발표되었고, 키너는 흥기탄동의 댓가로 1급 살인 한 건과 기타 중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사는 키너가 "지역사회에 지극히 위험한 존재"라며 그에게 보석 없는 구속 명령을 내렸다.

키너는 미국인이고 희생자들은 시리아, 이라크, 에티오피아에서 온 난민 가족들이었지만, 보이스 경찰의 윌리엄 본스 서장은 지금 물론 만으로는 이번 흥기공격이 증오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키너는 판사에게 자신은 혐의 사실이나 재판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자기 변호는 자기가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사는 어쨌든 관선 변호인을 지명할 것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설명한 혐의 사실은 그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키너에게 말했다.

뉴스스



태풍을 피해 날아온 갈매기 3일 오후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가운데 경남 남해군 상주은모래비치 해변에는 갈매기 수백 마리가 날아와 태풍을 피하고 있다.

시민단체, '대출금리 조작' 시중은행 3사 검찰에 고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대출금리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시중은행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일 경남·KEB하나·한국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을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3개 은행이 대출금리를 조작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적용된 이자율에 따른 금리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객들이 신용프라이빗, 우대금리에 따른 변동, 소득의 향상, 직업 및 직장의 연봉, 담보 제공의 변동 등을 이유로 금리 산정에 필요

한 추가 자료를 수시로 제출해도 대출금리를 재조정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려 온 김한기 소비자정책팀장은 "시민들에게 대출금리도 모자라 대출금리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시민들은 공분하고 있다"며 "특히 고객이 맡긴 돈으로 영업하는 업종의 특성상 도덕성과 책임성이 강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금융소비자들로부터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9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대출 고객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약 6%에 해당하는 1만2279건의 대출금리를 높게 산정했고, 여기에서 비롯된 이자수익은 26억원으로 추산된다. 하나은행은 252건으로 1억8000만원의 수익을, 씨티은행은 27건으로 1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들 단체는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해 나머지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향후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라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건강검진이 증명되어도,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